

여성암 1위 '유방암' ... 멍을 만져지면 즉각 검진



건강 바로 알기 유방암

이승민

한국건강관리협회 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암은 유방 안에 머무는 양성 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다. 유방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어느 것이든 암세포로 변할 수 있으므로 발생 가능한 유방암의 종류는 꽤 많다.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 바로 알고 대비하자.

◇위험 요인= 대부분의 유방암은 유관과 소엽의 세포(특히 유관 세포)에서 기원하며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몸의 표면이나 내장 기관의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한다. 유방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여성호르몬, 음주, 방사선 노출, 유방암 가족력 등이 있으며 특히 폐경 후에는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 호르몬과 관련하여는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위험하다. 즉 이른 초경, 늦

여성호르몬·음주·가족력 등 요인 수술·약물 요법·방사선으로 치료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관리해야 40세 이상 1~2년 간격 검사 권장

은 폐경, 폐경 후의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 모유 수유를 하지 않거나 첫 출산 연령이 낮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90% 이상은 여러 위험 인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유발되고 5~10% 정도가 유전적 요인, 즉 유방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관련있다. 자신의 어머니나 자매 어느 한쪽에 유방암이 있는 사람은 둘 다 암이 없는 경우에 비해 언젠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2~3배쯤 되며, 어머니와 자매 모두 유방암 환자라면 그 위험성이 약 8~12배로 늘어난다고 알려졌다.

예방법으로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금연과 절주를 하고 적절히 운동하면서 영양 상태를 알맞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승민 전문의

유방암 발생률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별적인 유방암 위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항호르몬 제제 복용 등의 예방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매달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만 40세 이상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 및 의사의 임상 진찰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유방의 통증은 초기 유방암의 일반적 증상이 아니다. 당사자가 암을 의심하게 되는 가장 흔한 계기는 유방에서 멍을(덩어리)이 만져지는 경우다. 그 밖에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올 수 있으며, 암이 진행되면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기도 한다.

◇수술과 약물요법, 방사선으로 치료=진단 방법은 자가검진과 임상 진찰, 방사선 검사(유방촬영

술), 유방초음파, 조직검사(생검) 등이 있다. 유방촬영술은 악성 미세석회화 관찰에 특히 용이하며, 초음파로 종괴를 평가해 조직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방에서 멍을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은 아니며 섬유낭성 질환, 섬유선종 따위의 양성 질환인 경우가 더 흔하다. 그러나 만져지는 종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악성의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조직검사 후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면 수술 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 단층촬영(CT), 뼈 스캔(Bone scan),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등의 검사를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유방암 치료의 주축은 수술과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다. 아주 초기의 유방암을 제외하고는 수술 후에 항호르몬요법이나 항암화학요법, 혹은 둘 다 시행하는데, 어느 것까지 할지는 환자의 연령과 폐경 여부, 종양의 크기, 겨드랑이 림프절로의 전이 정도,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다.

재발과 전이되는 부위로는 뼈가 가장 많고 이어서 폐, 간, 중추신경계의 순이다.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유방암도 항상 재발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

다. 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이 없듯이, 재발을 철저히 막을 방도도 없다. 따라서 암 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국소 재발이나 전이 재발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자가검진과 정기 검진=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되는 암으로 5년 상대생존율이 국한일 경우 98%, 국소일 경우에는 90%에 달한다.

과거에는 초기암 환자의 비중이 적었으나, 최근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조기 발견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수술에서도 가슴을 살릴 수 있는 유방보존적 절제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유방보존적 절제술은 치료 효과도 기존 유방절제술과 동일하므로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법이지만, 적용 대상이 초기암에 제한된다.

무엇보다 유방암은 자가검진 및 정기 검진으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나라 여성은 치밀한 섬유조직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유방촬영술 후 치밀유방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금장 받아

취약계층 환자 희망 풍차사업 헌혈운동 등 다양한 지원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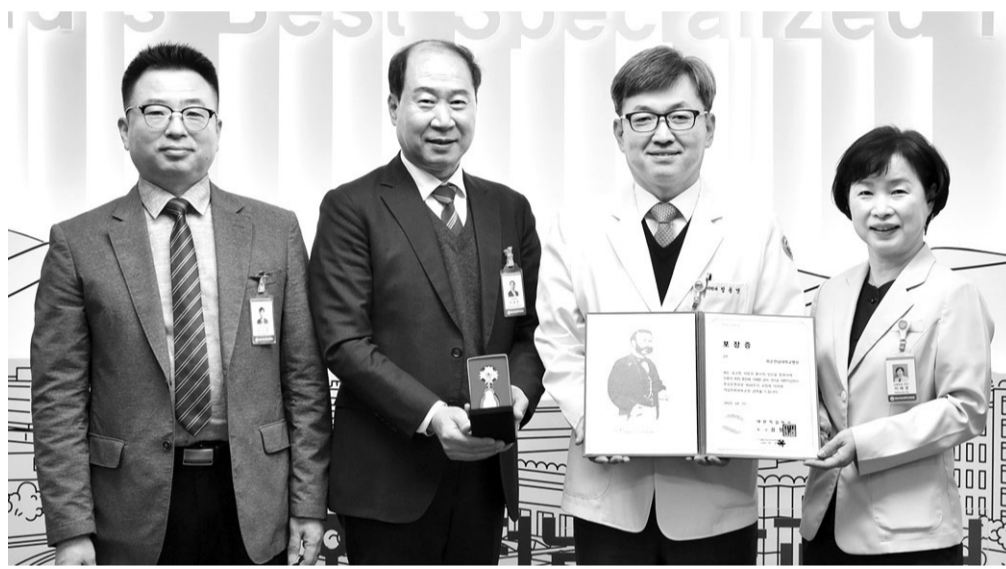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1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은 구호사업과 사회봉사를 위한 재원 조성, 헌혈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부여하는 포장이자,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3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희망 풍차사업, 헌혈 운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개원 19주년을 맞아 '사랑의 쌀' 2t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사진>

또 혈액 수급 안정화와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 등 혈액 사업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임직원들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나눔 캠페인을 기획·진행해 임직원이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한끼의 나눔'을 펼쳐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쉽고 즐거운 기부를 이끌기 위한 '아름다운 나눔문화장터'를 운영해 저소득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촌 온라인 의료봉사과 찾아가는 진료, 해외 의료봉사 등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은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랑의 감장김치 나눔', '노숙인 도시락 지원', 월드쉐어 미얀마 난민 '쌀·희망나눔', 힐링과테말라 '의료기기 기증', 월드비전 '보호종료아동 지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과테말라 환아·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소외되고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용연 병원장은 "우리는 ESG 경영실천을 위

해 각종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사회공헌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눔과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전파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기독병원 제14대 병원장에 이승욱 박사 선임

광주기독병원 제 14대 병원장에 이승욱(사진) 순환기내과 부장이 선임됐다.

16일 기독병원에 따르면 병원 재단이사회는 지난 14일 이승욱 박사를 광주기독병원 새 병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승욱 순환기 내과 부장은 전남대에서 졸업과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수했다.

이승욱 차기 병원장은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로 대한순환기학회, 내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미국심장학회 등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회와 연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심사 '적합'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련 활동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KOSHA-MS 인증을 취득한 전남대병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 또는 보완해 운영함으로써 최근 실시한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받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안영근 병원장은 "직원, 내원고객 등 병원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병원 의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협 광주전남지부,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박종석)는 최근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20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품은 유기농 생리대와 파우치, 사용설명서가 포함된 키트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 물품들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여성 청소년에게 전달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18년부터 5년간 1만 3944명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건교육, 사회공헌 건강검진,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신고 포상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